

7이닝 10K 삼진쇼... 언터처블 '브룩스'



7이닝 1실점 시즌 9승...KIA, 한화에 8-4 승리
 평균자책점 2.68→2.61...탈삼진 순위 리그 4위로 경춘
 최원준 2경기 연속 결승타·유민상 만루포...공·수 환상 호흡

KIA 타이거즈의 브룩스가 탈삼진쇼를 펼치며 연승을 달렸다.

KIA가 6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브룩스의 호투와 유민상의 만루포를 묶어 8-4 승리를 거뒀다.

허리 통증으로 한 턱을 쉬었던 브룩스는 지난 1일 삼성전 8이닝 무실점에 이어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연승을 달렸다. 이해창에게 솔로포는 맞았지만 피안타를 4개로 묶은 브룩스는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이날 경기로 브룩스의 평균자책점은 2.68에서 2.61로 낮아졌고, 탈삼진 순위(117개)는 6위에서 4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롯데 스트레일리가 144개로 압도적인 1위, 부산 알칸타라(119개)와 KT 데스파이네(118개)가 뒤를 잇고 있다.

브룩스로 날개를 단 KIA는 5승 1패로 기분 좋은 한 주를 마무리했다.

튕타자 겸 중견수로 나선 최원준이 공수에서 브룩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최원준이 1회 첫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뒤 터

커의 우측 2루타로 3루까지 향했다. 이어 최형우의 우익수플라이 때 선취점을 만들었다.

1회말 수비에서는 강한 어깨를 과시했다.

1사에서 브룩스가 강경학에게 좌중간 안타를 맞았다. 강경학이 2루 진루를 시도하자 공을 잡은 최원준이 빠르게 송구해 아웃을 잡아냈다. 수비 도움을 받은 브룩스는 노시환을 삼진으로 잡으며 1회를 정리했다.

2회에는 이성열과 하주석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냈고 번즈는 우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3회 2사에서 이해창에게 좌전안타는 맞았지만 중견수 플라이로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4회를 삼자범퇴로 지은 브룩스는 5회 정진호에게 세 번째 안타는 맞았지만 후속타를 허용하지 않았다.

6회 브룩스가 선두타자 이해창의 좌월 솔로포로 첫 실점을 했지만, 연속삼진으로 한화의 추격을 저지했다.

1-1로 맞선 7회초 윌리엄스 감독의 대타작전이 적중하면서 KIA가 승기를 가져왔다.

한승택의 대타로 나선 김민식이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했다. 홍종표의 희생번트에 이어 이번에는 김선빈이 대타로 투입됐다. 25일 만에 1군에 복귀한 김선빈은 중전안타를 날리고 대주자 김규성으로 교체됐다.

그리고 최원준이 중전 적시타로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터커의 안타 뒤 최형우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왔고 나지완의 몸에 맞는 볼로 만들어진 1사 만루에서는 유민상이 박상원을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겼다.

대타로 선두안타를 기록한 김민식은 탈자일순해 맞은 7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기록하는 등 KIA가 대거 7점을 뽑아냈다.

타선의 지원을 받은 브룩스는 7회말 이성열, 하주석, 번즈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탈삼진쇼'의 백미를 장식했다.

브룩스에 이어 '새얼굴' 김재열이 등판했다.

2014년 부산고를 졸업하고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방출 뒤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며 야구 선수의 꿈을 이어온 주인공. 올 시즌 KIA에서 육성선수로 새로 시작한 그는 5일 처음 1군에 등록됐고, 이날 1군 데뷔전에 나섰다.

결과는 0.1이닝 3피안타(1피홈런) 3실점으로 좋지 못했지만 고영창, 정해영으로 불펜을 가동한 KIA는 리드를 내주지 않고 8-4 승리를 거뒀다.

한편 최원준은 두 경기 연속 결승타를 날리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 왔소” 김선빈 오자마자 존재감

허벅지 부상 25일만에 출전 7회초 대타로 안타...7득점 빅이닝 발판

25일 만에 복귀한 김선빈이 대타로 나서 복귀 안타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이 6일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앞서 엔트리에 등록됐다. 지난 8월 12일 왼쪽 대퇴 이두근 부상으로 엔트리에 빠진 지 25일만의 복귀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날 경기 전 일주일 정도 김선빈을 대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김선빈은 1-1로 맞선 7회초 1사 2루에서 대타로 복귀전을 치렀다.

김선빈은 한화의 두 번째 투수 강재민을 상대로 중전안타를 만든 뒤 대주자 김규성으로 교체됐다. KIA는 김선빈의 안타를 발판 삼아 7회 대거 7점을 뽑아냈다.

올 시즌 FA 신분이 된 김선빈은 앞서 세 차례 부상으로 엔트리에 머물렀다.

6월 9일 KT와의 경기에서 주루 도중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된 뒤 다음 날 엔트리에 빠졌다. 6월 23일 1군에 재합류했지만 13일을 채우고 다

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등재됐다. 이번에도 왼쪽 허벅지가 문제였다.

두 번째 재활을 끝내고 7월 31일 돌아온 김선빈은 8월 11일 LG와의 경기에서 복귀 후 첫 3안타를 기록하며 주축 선수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날 김선빈은 다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선 경기에서 수비 도중 허벅지에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또 재활군 신세가 됐다.

세 번이나 같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윌리엄스 감독도 김선빈의 복귀에 신중을 기했다.

앞선 경우와 달리 퓨처스리그에서 실전까지 소화하도록 하면서 '완벽한 몸상태'에 집중했다.

이에 맞춰 지난 1일 고양 독립리그팀과의 연습경기 때 김선빈은 4·5일 상무와의 퓨처스리그 경기까지 소화한 뒤 'OK' 사인을 받았다.

그리고 6일 엔트리에 등록된 김선빈은 복귀 첫 타석에서 안타 행진을 재개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암초 만난 김광현

신장 경색 발병 복부 통증...리그 복귀 판단 어려워

신장 경색 진단을 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의 한국인 투수 김광현(32)은 올 시즌 안으로 다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을까.

조 모렐리의 세인트루이스 사장은 "희망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리 쉽지 않은 문제다.

무리하게 복귀를 추진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김광현이 통증을 호소한 건 지난 5일이다. 원정 경기를 위해 방문한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숙소에서 오른쪽 복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신장 경색 진단을 내렸다. 신장 경색은 신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김광현은 간헐적 혈전 생성 문제로 인해 신장 경색 증상이 나타났고, 혈액 희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통증을 잡혔고, 김광현은 6일 퇴원했다. 약물치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구단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입장이다.

모렐리의 사장은 6일 김광현의 시즌 내 복귀 전망을 묻는 말에 "희망적"이라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 김광현의 약물치료 과정과 추이를 살펴본 뒤 복귀 시점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규시즌은 이달 28일 종료하는데, 김광현의 복귀가 절실하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의료진 소견을 듣고 김광현을 10일째리 부상자 명단에 등재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김광현의 부상자 명단 등재는 지난 선발 등판 직후인 3일로 소급 적용됐다. 이에 따라 김광현은 12일부터 시작하는 신시내티 레즈와 3연전부터 다시 공을 던질 수 있다.

구단 전력 측면에서 볼 때 김광현의 이른 복귀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김광현 본인에겐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자세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허 찢린 흥국생명

GS칼텍스, 女 배구 컵대회 3년만에 우승...김연경 편중 역할 이용 주효

10년 만의 컵대회 우승을 넘어 사상 첫 무실 세트 우승까지 노렸던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도전이 허무하게 좌절됐다.

2020 제천-MG새마을금고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우승 트로피는 GS칼텍스에 돌아갔다.

GS칼텍스는 지난 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에서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0(25-23 28-26 25-23)으로 완파했다.

3년 만에 컵대회 정상에 오른 GS칼텍스는 통산 4번째 우승으로 역대 여자부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11년 만에 국내 무대로 복귀한 '배구 여제' 김연경과 '슈퍼 쌍둥이' 이재영-이다영 자매를 보유한 흥국생명은 '흥벤저스'로 통했다.

하지만 약점은 있었다. 흥국생명은 국가대표팀에서도 '쌍포'로 활약한 김연경, 이재영의 레프트 공격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GS칼텍스는 이를 역이용했다.

GS칼텍스는 이재영의 체력을 빼기 위해 목격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넣었다. 또한 국내 최장신 선수인 메레타 러츠(206cm)와 문명화(189cm) 등 블로커들을 끈질기게 붙여 흥국생명의 레프트 공격을 봉쇄했다. 리시브와 수비가 흔들린 나머지, 다른 공격 옵션을 찾지 못한 흥국생명은 결국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무너졌다.

GS칼텍스는 러츠(25점)-이소영(18점)-강소희(14점) '삼각편대'가 고르게 활약했다. 특히 러츠는 블로킹 4개를 잡아내며 양 팀 최다 득점으로 국제일학의 활약을 펼쳤다. 분루를 삼킨 김연경이 준우승 팀 수훈선수(MIP)로 뽑혔다. 흥국생명 센터 이주아는 대회 라이징스타상을 받았다. MIP와 라이징스타상 상금은 각각 100만원이다. /연합뉴스

“이게 아닌데...” 지난 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0 제천-MG 새마을금고 프로배구 대회 여자부 결승전. 흥국생명 김연경의 스파이크가 블로킹에 실패하고 있다. /연합뉴스